산업맥박

표준전자문서 보급 · 확산 급물살

표준전자세금계산서의 인증으로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는 전자문서의 보급확산 방안으로 6월부터 표준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통 사업의 수행자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시행에 앞서 2005년 4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시범사업에는 총 6개 업체가 참여 하였으며, 그 중 5개 업체(신용보증기금, 조달청, 한국물류정보통신, 전자증명원, LG-CNS)가 심사를 통과하였다.

시범사업을 통과한 5개 업체는 6월 시행되는 인증사업에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인증사업은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기존에 각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호환이 안되던 부분을 해소시켜 앞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보다 빠른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업계에서 약 30억장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번 인증사업의 시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이 10%만 증가하더라도 약 2천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이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종이 없는 비즈니스 구현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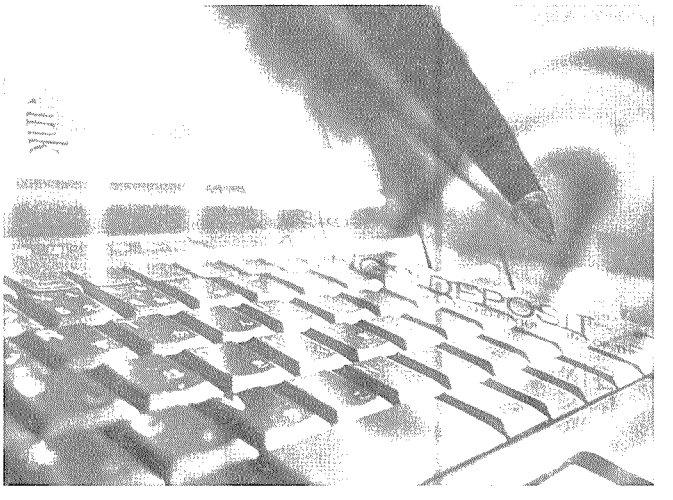
표준에 근거한 검증방식을 부가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높여 범용성이 증대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을 확산함으로써 국내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된다.

추진 배경

2001년 1월 국세청의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1-4호)를 통하여 업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을 개시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업의 업무효율성과 재고 및 비용 절감효과를 유발하여 제조, 유통, 제약, 자동차, 게임, 출판산업 등 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의 다양한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간 상호운용성의 결여로 기업간 전자적 거래의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솔루션별 다양한 전송방법, 파일형식 등으로 국내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가 200여종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업무효율성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배가하고 국내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을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개정 · 고시되어진 "표준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인증사업을 실시하였다.

기대효과

e비즈니스 기업에 대한 직 · 간접적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 등 기업의 경상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전자신고제도 및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 확충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제출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의 세무관련 업무의 전자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